“지역경제 버팀목”…전남광주 중기인 화합·도약 다졌다

‘2026 전남광주 중소기업인대회’

지역 발전·기업 성장 의지 공유
엔피케이 김상준·한전KDN㈜ 대통령 표창 등 유공자 72명 포상
윤난실 “경영 지원책 대폭 강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전남광주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한 수상자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화합과 도약을 다짐했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6 전남광주 중소기업인대회’가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윤난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 양철호 광주국세청장, 이창호 광주지방조달청장 등 경제 유관기관 관계자와 중소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와 업종별 기업인, 중소기업 유공 수상자 등이 함께해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도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윤 부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경영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지역 중소기업이 압도적인 성장을 이루고 세계 무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가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주요 순서인 유공자 포상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과 근로자 등 총 7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 표창 2명과 국무총리 표창 3명을 비롯해 정부 및 유관기관 표창이 이어지며 지역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온 기업인들의 공로를 조명했다.

정부 포상에서는 엔피케이㈜ 김상준 대표와 한전KDN㈜이 각각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에이앤비정보기술 이종식 대표, 21세기메디칼㈜ 신미향 대표, 제이엔티㈜ 김승관 대표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들은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 인원산업㈜ 성효인 대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자연지락㈜ 김진태 대표 등 20명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표창 17명,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 2명, 광주지방조달청장 표창 2명,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 25명 등도 수여됐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회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건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의 중심에는 지역 일자리와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이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돼준 중소기업인들의 헌신이 통합특별시를 밝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인대회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년 5월 셋째 주 중소기업주간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다. 1990년 시작돼 올해 37회째를 맞았으며 국가경제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모범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안태호 기자

“장학금부터 자산 형성까지” 광주은행, 자립준비청년 지원

5억5천만 지원…자립 기반 마련
금융 컨설팅·자격증 취득 등 추진



지난 6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희망이 꽃피는 봉사단 4기 및 모아보다 2기 수료식에서 이상채 부행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9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6일 본점에서 변정근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장과 이상채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이 꽃피는 봉사단 4기’와 ‘모아보다 2기’ 수료식을 개최하고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 공유와 프로그램을 마친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광주은행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부터 금융교육, 자산형성까지 단계별로 연계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 창립 58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의미를 되새기며, 미래세대를 위한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희망이 꽃피는 봉사단’은 지난 2023년부터 운영해 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립준비청년과 취약계층 대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의 학습과 돌봄을 돕는 멘토로 활동하고 장학금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희망이 꽃피는 봉사단 4기’에는 대학생 40명이 참여해 8개월간 활동했으며, 장학금과 함께 문화체험 및 멘토링 기회를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25년부터 운영 중인 ‘모아보다’는 ‘희망이 꽃피는 봉사단’ 수료자를 대상으로 금융역량 강화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후속 프로그램이다.

올해 참여자 20명에게 금융·재무교육과 1대1 금융컨설팅을 제공하고, 매월 생활안정 지원금과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

광주은행은 2026년 두 사업에 총 5억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상채 부행장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미래세대의 성장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한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가입 200만호 돌파

1천25GWh 전기 절감
43만여t 온실가스 감축

한국전력은 9일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가입 고객이 200만호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과거 2개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사용량을 일정 수준 이상 줄이면 절감 실적에 따라 캐시백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2022년 시행 이후 꾸준히 가입고객이 증가해 왔다.

에너지캐시백을 통한 국가 경제적·환경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절감한 전기는 총 1천25GWh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가정의 연간 전력사용량과 비슷한 규모다.

온실가스도 약 43만t을 줄이는 효과를 거둬,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는 물론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에도 기여했다.

한전은 가입고객 200만호 돌파를 기념해 국민 참여 행사도 마련했다. 200만번째 가입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하고, 9일부터 12월 6일까지 대국민 축하 댓글 이벤트와 전국 어린이 에너지절약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벤트와 공모전은 에너지절약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http://esp.kepco.co.kr)’ 공모 게시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박선옥 기자

GICON, 내일 GCC사관학교 3기 페스티벌

채용 상담·성과 전시 등 다채

광주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을 이끌 전문 인재들의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취업과 산업 현장 진출을 지원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9일 “오는 11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GCC사관학교 3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최하고 GICON이 주관하는 GCC사관학교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웹툰, 실감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산업에 필요한 실무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GCC사관학교 3기 교육과정 수료를 기념하고 교육생들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생과 협력기업 관계자, 선배 기수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수료식을 비롯해 콘텐츠 강연, 기업 채용 연계, 교육 성과 전시, 교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 3기 교육생은 총 108명으로, 기초교육부터 현장실습까지 총 1천시간에 걸친 전문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협력기업 8개사가 참여하는 채용 상담과 모의 면접을 통해 교육생들이 기업 관계자와 직접 소통하고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태호 기자

